

‘호상탁마’로 올바른 판단해야



있는 상설기관이나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기대합니다.”

오후 1시. 운화당에는 월운 스님을 비롯해 강평에 참가한 대중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조실 스님에게 삼배를 올리고 곧바로 강평회에 들어갔다. 워낙 어려운 경전으로 치부되었던 <인본육생경>은 부처님과 아난의 대화 형식으로 전개되며 인연을 따라 여러 법이 생기는 양상을 자세히 설하고 있다.

연기의 도리를 설하는 <인본육생경> 자체가 어려워 그런지, 스승에 대한 예우 때문인지, 아니면 참가 대중들의 안목이 스승과 현재로서인지 강평은 시역고에 대한 오답자 지적과 일부 문장의 번역에 대한 이의제기, 편집상의 문제 지적 등으로 이어졌다.

본선사 능엄학림 학감 취봉 스님의 진행으로 4시간 동안 이어진 강평회는 진지했다.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가 <인본육생경>의 번역 및 주석 과정과 의의를 설명하고 월운 스님이 이 경을 ‘초기대승경’이라 한데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며 강평의 열기가 달구어졌다. 한 사람의 후학이 20여 쪽을 집중 연구해 발표를 했다. 경상 앞에 꽃꽂이 없이 후학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록하는 조실 스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대로 ‘가르침’이었다. 토씨 하나에서 문장부호 하나까지 꼼꼼하게 따지고 침착하는 정성으로 달구어진 강평

회 그 자체가 잠입한 법석이 아닐 수 없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잇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해 길이 전승시키기 위해 결집 작업을 할 때의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었다. 결집의 제1차 결집 장면 말이다. 부처님을 측근에서 시봉했던 사촌동생 아난이 구술(口述)하면 대중이 논의해 경의 원본을 삼았던 그 장엄한 장면. 그 때는 문자 기록이 아니라 암송하는 것이 유일한 유통 수단이었음을 생각하면, 절집 글에서의 제1차 결집으로부터 2500여 년이 지난 이날의 강평회는 시공을 초월한 귀한 불사의 현상이었다.

월운 스님은 어느 대목에서 “나는 웬만차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사람에게 못매를 맞는다”며 “어려분이 오자를 잘 찾아 못 보려고 그런 거야”라며 분위기를 식혀 주기도 했다.

능엄학림 출신인 반산 스님은 “이렇게 귀한 자리가 만들어진 것에 감사드린다”며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경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암사 강주 지형 스님은 “오늘 강평회를 해 보니까 강원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강학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월운 스님은 “오늘 가지고 온 대본에 지적한 사항을 빠짐없이 적은 뒤 가져가지 말고 나에게 주면 그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하겠다”고 부탁했다. 다시 강평회를 마련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날 강평회로 인해 <인본육생경>의 번역에 날개가 달린 것은 분명했다.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정도의 번역은 아닐지라도 고전을 번역하는 새로운 풍토의 필요성이 제기된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인식제고 자체가 월운 스님이 강평회를 마련한 이유의 팔 할은 될 것이다.

“이미 마음을 낸 이들도 더욱 정진해야겠지만 새 인물을 개발해 교육시켜야 하는데, 그러자면 종단적인 합의와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한문고전을 전공하는 기구를 상설화해서 우리의 고전은 우리의 기구에서 판독한다는 원칙이 서야 앞으로 한국불교의 명맥을 주동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수년 전부터 월운 스님이 주장해 온 ‘상설기구’에 대한 원칙이 이날의 강평회로 그 지평을 넓혀 갈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강평회에 참가한 후학들은 한국불교 경학연구와 역경불사의 주역이 될 것이기에 여기 이름을 기록한다.

취봉(능엄학림 학감) 거부(前 수덕사 강주) 응각(前 백양사 강주) 정산(법주사 강사) 학봉(영축사 주지) 현문(능엄학림 강사) 중봉(동화사 강사) 서봉(화명선원장) 우설(통도사 원장) 승석(청암사 주지) 반산(능엄학림 출신) 각진(능엄학림 수학) 현암(능엄학림 연구원) 지형(청암사 강주) 일연(봉녕사 강사) 상덕(청암사 강사) 수법(청암사 중강) 운산(운문사 강사) 신규탁(연세대 교수) 김두재(역경원 역경위원) 윤옥선(불경서당) 최은옥(불경서당) 이상 무순.

글·사진=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100. 글렌 D. 페이지(Glenn D. Paige) 박사

글렌 D. 페이지(Glenn D. Paige) 교수는 1929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브록턴(Brocton)에서 출생해 프린스턴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중 군에 입대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 육군 포병 소위로 1950년 9월 4일 부산에 입항했다. 페이지 교수는 1950-1952년 한국전에 참여했다. 당시 미 육군장교였던 그는 ‘비살생 세계 정치학’이라

는 주제로 전세계 평화공존을 주장했다. 페이지 교수는 한국인들의 전쟁 피해 상황을 낱말이 목격하고, <미국의 한국 전쟁 결정>이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불교와 인연이 전혀 없었던 페이지 교수가 부처님 가르침을 알기 시작한 것은 1972년 무

국절을 장군할 것을 제안했다. 1975년에 대원 스님은 페이지 교수의 초청으로 하와이를 방문했다. 대원 스님은 호놀룰루와 이키키의 페이지 교수 집에서 한 달간 생활하며 한국 불교 포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페이지 교수는 대원 스님에게 승려의 본분은 세속적인 학문 연구가 아니라 포교에 있다고 설득했다. 그 후 페이지 교수는 대원 스님



하와이 무량사.

원 스님에게 설교했다. 자신의 조국인 한국과 자신이 선택한 미국으로부터 동시에 소외받고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페이지 교수는 대원 스님과 함께 포교에 앞장섰다. 대원 스님과 페이지 교수는 선재동자처럼 한국 불교의 전법의 수레를 이 미국의 땅에서 이렇게 소외받은 계층을 위해서 끌리기 시작했다.

하와이에서 해외 포교를 시작한 후 6년 만에 대원 스님은 1982년에 대원사의 대각 불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하게 됐다. 대원사 준공을 기념해 대원 스님과 페이지 교수는 ‘불교와 평화지도자론’을 주제로 1983년 제1차 세미나를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중국, 남한, 스리랑카, 소련, 태국, 그리고 미국의 저명한 평화 운동가

하와이에 한국 절 창건 제안... 한국 여성 포교에 앞장서

였다. 페이지 교수는 1961년부터 전분을 맺어오던 동국대 김동익 총장에게 그해 여름 방학 동안 한국의 절에서 요양도 하고 저술 활동도 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김동익 총장의 소개로 페이지 교수는 설악산 신봉사를 찾았다. 당시 신봉사는 문성준 스님이 주지로 있었고, 대원 스님이 재무국장으로서 재직하고 있었다. 페이지 교수는 대원 스님 옆에서 2달간 집필과 수행생활을 했다.

페이지 교수는 수행생활을 통해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한 경험을 얻었다. 그 곳에서 글을 쓰고 머무르면서 대원 스님과 나누었던 많은 대화들은 한국불교사에 커다란 획을 그어 줬다.

페이지 교수는 당시 하와이에 30여 중국·일본 절이 있었으나 한국 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하와이에도 한국 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페이지 교수는 대원 스님에게 요청해 하와이에서 한

이 하와이에서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정부, 의회, 불교관계 인사 등을 소개시켜 줬으며, 많은 후원을 뒷받침 했다.

대원 스님이 하와이에서 포교를 할 당시, 하와이의 한국인 교포는 약 2만-2만5000명 정도였다. 하와이는 우리 조상들이 미주 가운데 최초로 이민한 곳이다. 하와이 진주만에는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자리한다. 그래서 미군과 한국의 여인들에 얽힌 애환이 하와이에 어려 있다. 한국의 기지촌 여성들은 미군과 국제결혼을 한 후, 미국으로 들어와 생활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생활이 어려운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

페이지 교수는 한국 불교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와이의 한국여성들이야말로 한국 불교의 포교의 진정한 대상이라고 대

들과 학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미국과 적대관계였던 소련 학자들의 이 세미나 참여한 것은 당시 대단한 수확이었다. 그 후로도 일본 도쿄, 몽골, 서울 등을 거쳐 ‘불교’를 주제로 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하와이 대원사는 특정 스님이나 개인 및 단체를 위해 지은 것이 아니다. 순수하게 고국을 떠나 힘들게 살고 있는 교포들을 위한 따뜻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기 위해 건립됐다. 대원사는 더 나아가 한국불교의 미국 전초 기지로서 발판을 마련했다.

사실 불교는 무슨 일을 해도 상(相)을 내지 않고, 견(見)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상과 견을 가지고 시비한다. 이것은 진정한 불교가 아니다. 암울한 전황에서 한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불교의 깊은 뜻은 한국불교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전초가 됐다.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범이 범의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庚寅 仲夏 편집인 日江 합장



예경·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의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2,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 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7,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제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 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백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송가다비편과 계가다비편이 탑재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 그밖에 도서목록 -

- 영혼과 운명의 비밀(365쪽)
- 불교종합의식 집(393쪽)
- 한국 한양국 전통의식 집(225쪽) 등이 있다.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천우중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도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거제도 총영사 이미지홍불명화